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구가톨릭 사회복지대상 서정길대주교상 수상 소감문-

이 경 식

강남성모병원 내과 교수

존 경하는 이문희 대주교님, 대구대교구 사회복지대상 위원님, 호스피스에 종사하시는 동료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이 뜻깊은 서정길대주교상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욱이 이 상이 사회복지화부문 상이기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비천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상을 주시니 그 감사의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수 없으며, 더욱 분발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은혜로 어려서 영세를 받았으나, 젊은 시절엔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암전문의사가 되어 죽어가는 말기 암환자들을 돌보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던 모든 세속적인 가치들이 죽음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랫동안의 고통과 방황 속에서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비결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깨우쳐주셨습니다.

그후로 주님은 저를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들을 전인적으로 돌보는 호스피스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셨으며, 곧 호스피스야말로 금세기에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시공을 초월하시어 죽어가는 사람들 안에 함께 계시어 그들의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마치 성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다' 하시며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 미사 중에 재현됩니다.

이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시공을 초월하여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재현됩니다. 어제의 그리스도는 오늘의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의 앞날은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호스피스를 통하여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복음화 시켜 새로운 사회를 만드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호스피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든 사람들을 어떤 종교를 믿든지 형제 자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호스피스가 현 의료체제에 정착하여 완화의학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하루빨리 국가 보건의료로 성장하여 모든 사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호스피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호스피스에 참여하여, 1981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 교회의 배려로 호스피스 창설에 참여하였고, 1998년에는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창설에 참여하여 오늘

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그간 수많은 임종환자들을 돌보는 특권을 저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사회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호스피스에 참여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 영혼에 더 깊이 각인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호스피스의 핵심은 사업자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

을 전하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저는 호스피스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연변에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간 저는 중국 교회의 도움으로 가톨릭의료봉사단에 참여하여 연변의 돈 없고 병든 동포들을 의술과 피정지도로 돌보아 왔습니다. 중국 선교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타는 상금은 중국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민남에서 오는 축복보다
작은 근심과 두려움을 더 많이 헤아리며
남을 의심하는 겁쟁이임을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멀리 가야 할 민남의 길 위에서
저의 비겁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신처럼 겸허하고 자유로운
기쁨의 순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해인 '만남의 길 위에서' 中